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여자가 갈비뼈에서 나온 것이 ‘열등하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최초의 사람은 진흙에서 나왔으니 사람은 진흙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사람이 진흙에서 나왔으니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흙을 빚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저 진흙일 뿐이었다.<sup>1</sup>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 갈비뼈는 진흙과 마찬가지로 자료로 쓰인 것 뿐이지 갈비뼈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갈비뼈가 여자인 것도 아니다.<sup>2</sup>

아담을 잠재워 놓고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한사람이었다. [아담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단순히 “사람”을 말한다].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던 것이 여자가 창조됨으로 인해 아담은 남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성은] 동시에 생겨난 것이다.<sup>3</sup>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신 말씀에서 “거들 짝”이라는 말이 그동안 여자를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 중요한 어휘이다. “뚝는 배필”이라고도 하여 우리 억양으로는 보조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뚝는다”, “거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ezer 이다. 이 어휘는 구약에서 20 회나 오는데 이말의 뜻은 다음과 같은 본문에서 나오는 뜻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시 121); 우리의 도움이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시 124:8); 주는 나의 예뻐하시요 나를 전지시는 자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예뻐)이십니다. (시 70:5); 시 33:30; 시 115:9-11; 시 146:5; 신 33:29). 위의 성구에서 도움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짝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그 짝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sup>4</sup>

‘짝’ 또는 ‘배필’이라는 어휘는 히브리어로 케네그도 (kenegdo)인데, 이것은 한쪽이 다른 쪽의 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맞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같은 크기의 두 손을 맞대로 짝 지를 낀 상태와 같이 꼭맞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꼭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어떠한 조건으로든지 여성이 열등하고 남성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이 ‘짝’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한,

<sup>1</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63.

<sup>2</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63.

<sup>3</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64.

<sup>4</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68-69.

서로에게 큰도움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우월하다는 생각이나 여자가 열등하다는 생각 둘다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sup>5</sup>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머라 부르리라”(창 2:23): 이구절에 대해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으므로 남자가 여자에 대해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구절속에는 이름이라는 말이 동사로도, 명사로도 나오지 않는다. ‘부르다’(gara)는 이름이라는 명사의 동의어도, 형행어도, 대체어로도 쓰이지 않는다.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여자를 자신의 짝으로 발견한 것이다. ‘여자’(지어미)라는 단어는 이름이 아니고 보통명사이다. 성을 지적하는 어휘이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sup>6</sup>

2:24 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에서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장가를 드는 것이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 남자가 여자 쪽으로 가는 것이 모계사회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도 한다. 분명한 것은 창조 질서 속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7</sup>

사람들은 인류 타락의 책임을 이브에게 돌리고 모든 잘못이 이브에게 있다고 그리고 여자를 유혹자로 규탄해 왔다. 창세기 3 장 타락 기사를 읽어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거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고 똑똑히 대답한다. 사실은 이 명령은 여자가 생기기 전에, 아담이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기 이전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대답을 똑 떨어지게 제대로 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말은 동사에 단수, 복수가 분명하지 않고 주어 생략이 많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1) “하나님은 우리들 더러 --- 우리들이 죽지 않으려거든 ---”라고 한 여자의 말로 보아 2) 그리고 뱀이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에서 복수를 사용했다는 점, 3) 그리고 창 3:6 에 “함께한 남자에게 주어 그도 먹었다”에서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함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뱀의 말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자가 대답했고,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자보다 먼저 받은 남자는 먹으면 안된다고도 말을 못하고 받아 먹는다.<sup>8</sup>

여기서 여자 혼자가 아니라 두 인간이 함께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감은 여자만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넘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남자는 여자에게 유혹을 받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들은 공범이다. 이 사건에서 여자에게 다 책임이 있고 남자에게 책임이 덜하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여자만 원죄의 범죄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 나사렛 선언과 여성 (눅 4:18-19)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누심이다. 누가복음의 해방과 회년사상을 여성의 입장에서 읽어, 기쁜 소식을 여성 해방 입장에서 읽을 수 있다. 본문은 영적인 구원의 관점에서만 읽을 것이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특히 여성들의 가부장적인 제도의 억압에서 고통하는 여성들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sup>5</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70.

<sup>6</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71.

<sup>7</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71.

<sup>8</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74.

## 가나안 여인

100년전에 여성성경을 쓴 엘리자베스 스탠튼은 “이 가나안 여성은 예수와의 논쟁에서 자신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제자들이 귀찮아하는데도 자기가 주장한 바를 아주 명쾌하게 지적했다”고 기록했다.<sup>9</sup>

이 여인은 3번째로 끊어 얹드려 간청하는데도 강아지로 지칭된다. 이스라엘은 자녀로, 이방인은 강아지로 비기는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 강아지라도 좋으니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겸손한 심정이다. 딸을 고치겠다는 일념이 이 여인을 주체성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세워준다. 이 여인은 3번이나 거절당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하던 때에, 이방인과는 상종도 않던 때에 예수는 그 두가지 장벽을 모두 깨뜨린다. 이유는 그 여인의 불굴의 태도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감동하셨을 것이다. 예수는 너의 믿음이 강하다 하시고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다.<sup>10</sup>

### 사마리아 여인 (요 4:3-42)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기로 하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피로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정오쯤이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산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족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더러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 너라"** 하시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야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가 그 여자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람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 동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 이를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그대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 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표준 새번역에서)

위의 기사는 보통 사람들간에 일어난 대화가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사람들과의 관계를 알고 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일어날 수 없는 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이 두 민족의 관계는 …

<sup>9</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155.

<sup>10</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156.

예수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더구나 제자들이 와서 놀란 것은 여자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주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에게서 물도 얻어 마셨다는 것이다.

이여인이 남편이 다섯있었다는 말 때문에 품행이 나쁜 여인으로 매도되어왔다. 그러나 남편은 바알 (Baal)이라하여 섬기는 주인을 뜻할 수도 있다.<sup>11</sup>

예수께서 영생의 문제를 제시했을 때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그 문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를 예언자로 인식한 후 첫 질문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바로 하고 있느지 아닌지를 고민한 사람의 질문이다. 예수는 참예배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그리고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나타난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하늘나라와 예배와 메시아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지식도 겸비한 여인이었던 것 같다. 예수님과 대화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여인에게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라고 알려준다. 아직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이여인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주체적인 자아확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여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자 했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채 그 사실을 알리고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나누려고 동네로 달려갔다. 그는 첫 전도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sup>12</sup>

만약 이여자가 창녀로 지탄받고 멸시당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에 금방 예수를 만나러 왔을까? 동네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나왔던 것을 보면 이여자는 그동네에서도 무시당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이다. 지도력을 가진 여성이었던 것 같다.<sup>13</sup>

### 그리스도를 고백한 마르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 16:13-30; 막 8: 27-30; 눅 9:18-21;) 마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요 11:25-27).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베드로에게서 부터 계승된 것이라고 한다.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면 마르다의 그리스도 고백도 똑 같이 중요하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고백은 한 사도의 고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마르다도 사도로 불릴 수 있다. 마르다의 고백 후에 나사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마르다는 예수의 어느 제자 못지않게 예수를 이해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이 마르다의 고백이 성경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채 살아 왔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만큼 예수를 잘 이해했던 마르다를 새롭게 파악하고 새롭게 찾아야 할 것이다.<sup>14</sup>

### 기름부운 여인 (마 26:6-13); 막 14:3-9; 눅 7:36-5; 요 12:1-8)

기름부운 여인의 이야기는 두가지가 있다. 요한복음의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와 죄많은 여인으로 알려진 회개한 여인의 이야기이다. 이 두이야기는 그동안 같은 이야기로 혼동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여자가

<sup>11</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164.

<sup>12</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165-166.

<sup>13</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166.

<sup>14</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176-177.

시몬의 집에서 기름부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고,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죄많은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이야기이다. 베다니의 세 이야기는 공통된 것으로 다른 복음에서도 공통된 이야기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단 한 곳에만 있는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부는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지만 그 네 기사속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마 26:6-13); 막 14:3-9; 요 12:1-8) 기름부는 여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한다.

기름부는 이야기를 네 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였는가를 여실히 증명한다.

그 당시 손님이 올 때에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다 한다. 그런데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께서 식사하고 계신 방에 들어갔다. 또 공중 앞에서 머리수건을 벗으면 안되었고 머리를 푸는 것은 이혼의 조건이 될 정도로 금하는 일이었다고 한다.<sup>15</sup> 더구나 비싼 기름을 낭비한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3 백 데나리온이면 남자 장정의 1 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의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도 않았고 그 여자가 기름 붓는 것을 거절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여인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다.<sup>16</sup>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다. 예수는 그가 수난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세 번이나 말했다. 첫번째 수난 예고(막 8:31-32)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구나” 하시며 꾸짖으셨다. 조금전에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두번째 수난예고(막 9:30-31)를 악령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 갈릴리 지방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지조차 두려워하였다. 세번째 수난예고(막 10:32-34)를 했을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선생님의 좌우에 앉혀주십사고 소원을 말한다. 이때 주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왔다고 하셨다. 이렇게 세 번이나 예고해준 수난에 대하여 3 년이나 함께 동거동락하던, 더구나 제자로 선택된 남자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않았고 이해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 가면 예수께서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믿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 가면 잡혀서 죽을 예수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선생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하기위해 기름을 부었을 것이다.<sup>17</sup>

<sup>15</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179.

<sup>16</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178-179

<sup>17</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181-182

예수님의 반응은 “내 몸에 향 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세상 어 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마다, 이 여 자가 한 일도 전해 저서, 사 람 들이 이 여자를 기 억하게 될 것이다” 였다. 이 여인 외에 이 말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다. 이 일은 유월절을 몇 새 앞둔 때였다. 예수의 처형이 임박하고 예수 를 잡으려는 무리가 잔뜩 베풀고 있는 그 길을 가야하는 예수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누구에게 이 복음을 위임할 것인가를 고심하지 않았을까? 이 때 3 년이나 길러놓은 제자라는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을 위한 꿈이나 꾸고 있는데 이 여인의 값 비싼 향유를 붓는 행동에서 제자직이 확인되었을 것이다. “선생님, 평안히 가십시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이나 같았을 것이다.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의 참제자의 일을 한 것이다.<sup>18</sup>

### 통곡하는 여인들 -P. 183

###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성 -P. 205

### 과부에 대한 이야기 -P.213

### 부활의 증인들 -P 237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잃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다고 이화여대 장상 교수는 말했다.<sup>19</sup>

예수님 시대에 여인들은 사람의 수효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들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았었다. 남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성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하신다.<sup>20</sup>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중에 여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예수를 죽게한 일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루된 사람은 다 남자들이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예수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굉장했다. 예수는 여성들을 가르쳤고 여성들을 위해 싸우셨다. 여성들은 그의 쓰라린 죽음의 마지막까지 따라오며 반응을 보였다. 그들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지켜 보았다. 공관복음서가 모두 여성들이 예수의 죽음과 장례 때 참석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마 26: 56; 막 14: 49; 눅 23:49; 요 19:25-27; 막 15:42-47; 마 27:5-61; 눅 23:50-56). 남자라곤 아리마태 사람 요셉이 예수의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어달라고 해서 무덤 에 모셨을 뿐이다.<sup>21</sup>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복음서에 12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8 장 2 절에 나오는 예수를 도와드린 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의 마지막 수난, 장례, 부활과 관련된 기사에 나온다. 그녀는 고향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상업도시인 막달라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 불렸다. 그 도시는 부유하고 안락한 곳이었으나 예수를 만나 치유받은 마리아는 그 도시를 떠나 예수를 따랐다. 앓던 병에서 회복된 여인은 자기의 전존재로 예수를 섬겼다. 자기의 재산까지 드리면서

<sup>18</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182.

<sup>19</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37 (장상. 복음서 강의중. 1982. 이대 대학원)

<sup>20</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38-239.

<sup>21</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40-241.

예수 일행에게 교역을 한 것이다. (눅 8:3).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과 갈릴리에서 온 여성들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음이 틀림이 없다.<sup>22</sup>

초대교회에서 12 제자 중 가롯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도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오시는 동안,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 곁을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아 우리와 더불어 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라 말로 사도로 뽑히기에 알맞는 사람이다.<sup>23</sup>

마리아 경전에 따르면 그는 심지가 굳고 똑똑한 예수의 사도로 나온다. 베드로와 자주 충돌했는데 베드로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께 저역자를 줌 꾸짖으라고 간청한 일이 있다고 한다. 정신병으로 고통했던 마리아는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고 그때부터 예수를 따라 그의 고난, 죽음, 매장, 부활을 다 지켜보고 그 부활을 증언한 여사도이다. 학자들은 그가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던 사람으로 알려진 전승이 널리 퍼져 있었으리라고 추측한다.<sup>24</sup>

막달라 마리아는 새 세상을 위하여 새 세상을 위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역이 되었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생전에도, 예수의 부활 후에도 예수의 교역을 도운, 그것을 자기 삶으로 만든 진정한 신학자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 여성의 제자직 -P. 253

“누구의 발앞에 앉는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뜻이라고 한다. 마리아는 남자들에 게만 허용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여자에게 토라(오경)를 가르치는 니 토라를 태워버리라”고 할 정도로 여성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마르다로서는 자기일을 더들어 달라는 뜻도 있지만 여자로서 하면 안되는 짓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꾸짖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으니 아무도 그에게소 빼았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생각을 바꾸게 하신다.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 여성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마리아가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은 선생의 제자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을 말한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전형적인 역할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유대인들의 관습이 금지하는 것을 깨뜨리고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sup>26</sup> 257-258

### **도르가 (행 9:36)**

그런데 읍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Now in Joppa there was a disciple whose name was Tabitha.* 초대교회에는 요제질 불린 여성이 있었다. 우리성경에는

<sup>22</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46-247.

<sup>23</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47-248.

<sup>24</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48-249.

<sup>25</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50.

<sup>26</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57-258.

“ 여신도”라고 되어있으나 현대어 번역에는 여제자라 했고 영어 번역(NRSV)에도 disciple 이라 번역되었다. 원어에도 여제자로 되어있다.<sup>27</sup>

### 여사도 (롬 16:7)

바울은 유니아를 뛰어난 여사도라 부른다. 나의친척이며 한 때 나와 함께 갈렸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했으나 영어성경에는 outstanding Apostle 이라고 했다.<sup>28</sup>

### 예언자 안나

예수의 탄생후에 그 부모는 정결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성전에서 아기예수를 본 안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언한다 (눅 2:36-38).<sup>29</sup>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하고 있는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를 예언한다. 마리아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줄 때에 “성령이 너에게 내려 오시고 지극히 높은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눅 1:26-38). 마리아는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다. 그의 노래는 가진 사람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며 새로운 세계로의 비전을 보게한다 (눅 1:46-55).<sup>30</sup>

오순절 여성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행 1:14의 다락방이야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여자들도 함께 성령을 받았고 예언을 했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빌립의 딸들도 성령을 받아 예언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일곱 보조자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말르게 되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딸 넷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자였다 (행 21: 7-9)<sup>32</sup>

### 교부의 제지

기독교 전통에서 과부신세는 자선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제들과 감독들과 비슷한,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최초의 직분들의 하나였다. 안나 선지 (눅 2:36-38)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일생을 보냈고 예수를 메시아와 연결시켰던 히브리 과부로서 이런 전통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었다고 한다.<sup>33</sup>

### 바울과 여성 -P 297

이 구절은 바울신학의 핵심으로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열리면서 시작된 교회공동체는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새로운 모임, 새로운 질서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저 유명한 여성해방 선언문이다. 갈 3:26-28 이다.<sup>34</sup>

<sup>27</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66.

<sup>28</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67.

<sup>29</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68.

<sup>30</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69.

<sup>31</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69.

<sup>32</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70.

<sup>33</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271-272.

<sup>34</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300.



이 구절은 당시에 쓰이던 세례의식 문의 일부로서 세례자가 선포했고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세례는 종족의 차별을, 종이냐 자유인이라는 계급간의 차별과 성차별을 모두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던 옛질서에서 나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다. 세례받은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이 선언은 유엔인권헌장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sup>35</sup>

오늘날 한인교회 안에서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초대교회의 세례의식 고백문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고백하면 좋겠다. 모든 세계 교인이 모인 공동회의에서도 우리는 여성을 차별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교회의 중요 결의기구인 당회에는 목사와 장로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는 교단에는 여성이 당회원이 되지 못한다. 교회의 최고 결의기구에 여성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옷입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기본조항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sup>36</sup>

렘 31: 22: 주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안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품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섬기던 손으로 우리를 누르던 강자를 껴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새 일이 창조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런 사랑의 방법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는다.

<sup>35</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300.

<sup>36</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301.